

# 화해와 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지금 해내외의 온 겨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을 받아 안고 나라의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불타는 일념으로 충만되어 있다.

더이상 민족분렬의 역사를 이어갈수 없으며 하루빨리 분렬의 고통을 끝장내야 한다는것이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분렬의 역사를 끝장내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자면 북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여야 한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문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아가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북남관계개선이 없이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수 없으며 조국통일의 결정적인 돌라귀를 열어나갈수 없다. 북과 남의 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켜야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을 이룩할수 있다.

북과 남이 불신하고 대결하는 상태에서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근 70년간에 걸치는 민족분렬의 역사는 북남대결의 격화로 얻을것

## 북남의 노동자들도 힘을 합쳐

온 겨레를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으로 부르는 공화국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은 우리 동포계급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공개서한의 글줄마다에는 온 겨레가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을 다할 때 북남관계개선도 나라의 자주통일과 평화변영도 있다는 진리가 천명되어 있다.

조국통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바로 우리 민족이 제힘으로 이룩하여야 할 민족적위업이다.

조선민족의 피가 흐르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이룩할것을 호소하는 남조선인민들

1월 25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려 아파트의 현관문을 나서던 나는 문득 류다른 거리 풍경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오가는 사람들의 머리에 철에 어울리지 않는 색색의 우산들이 펼쳐져있었던 것이다.

지금이 어느때인데 우산이, 혹시 눈이 내리는가. 하늘을 쳐다보던 나는 떨어지는 비방울들을 보고 저으기 놀랐다.

한겨울에 비가 내리다니. 그리고보니 새해 들어와 첫비인셈이다.

한해중 제일 출다는 대한날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리는 비를 보니 마스한 봄이 성큼 눈앞에 온것만 같았다.

그 순간 나의 머리속에는 이 비가 결코 날씨의 조화로만 오는 비가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지금 불신과 대결, 적대와 반목질시로 동도대처럼 팽팽 얼어붙었던 북남관계는 정조

국통일의 주체는 비상이 강화되었다. 6.15와 더불어 이 땅에 펼쳐진 이 경이적인 사변들은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힘을 합칠 때 못해낼 일이 없으며 얼마든지 민족의 공동번영도 이룩하고 나라의 통일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6.15시대에 이룩한 모든 성과들을 전면부정하고 대결시대로 되돌려세우려는 분렬주의세력의 악랄한 책동은 북남관계를 또 다시 악화로 몰아넣었으며 동족사이에 불과 불이 오가는 첨예한 대결을 빚어냈다. 제반 사실은 북남관계가 개선되어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결과 전쟁밖에 초래될것이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현시기 북남관계는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게 최악의 대결상태에 놓여있다.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그냥 보고만 있을수 없으며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

북과 남사이의 관계개선은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수 없다. 철두철미 서로의 의지와 노력여하에 달려있는것만큼 북과 남 모두가 민족공동의 리익을 찾자리에 놓고 거기에 모든것을 북중시켜나갈 때 실현될수 있다.

들을 잊지 않고있으며 그날의 환희를 다시 안아올 일념으로 가슴들을 불태우고있다. 북남의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을 해나간다면 동도와 북을 하나로 통일만세를 부를것이다.

우리 공장의 전체 노동자들은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공개서한에서 지적한대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기 위한 애국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겠다.

평양석재공장 노동자 박길성

들을 잊지 않고있으며 그날의 환희를 다시 안아올 일념으로 가슴들을 불태우고있다. 북남의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을 해나간다면 동도와 북을 하나로 통일만세를 부를것이다.

우리 공장의 전체 노동자들은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공개서한에서 지적한대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기 위한 애국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겠다.

평양석재공장 노동자 박길성

들을 잊지 않고있으며 그날의 환희를 다시 안아올 일념으로 가슴들을 불태우고있다. 북남의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을 해나간다면 동도와 북을 하나로 통일만세를 부를것이다.

우리 공장의 전체 노동자들은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공개서한에서 지적한대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기 위한 애국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겠다.

평양석재공장 노동자 박길성

들을 잊지 않고있으며 그날의 환희를 다시 안아올 일념으로 가슴들을 불태우고있다. 북남의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을 해나간다면 동도와 북을 하나로 통일만세를 부를것이다.

우리 공장의 전체 노동자들은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공개서한에서 지적한대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기 위한 애국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겠다.



## 애국애족의 호소에 실천행동으로 응해야

\* 리훈혁 사회과학원 실장과 기자가 나눈 대답 \*

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지난 1월 23일 남조선당당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는 군사적적대행위가 불신과 대결을 낳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되어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리훈혁: 공개서한에도 명백히 밝혀져있지만 현시기 북남관계가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에 빠져있는 기본원인중의 하나가 바로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대결상태이며 그로 인해 산생되는 군사적적대행위이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군사적적대행위는 대결과 충돌을 낳는 온상, 북남관계개선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기자: 군사적적대행위를 종식시키는데서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야합하여 벌리는 북침전쟁연습을 중지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리훈혁: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야합하여 해마다 벌리는 《키 리졸브》,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북침을 노린 침략전쟁연습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입만 벌리면 이 연습들이 《년례

적》이며 《방어적》이라고 하고있다.

《방어》의 간판을 단 군사연습에 어지간한 나라의 전체 무력과 맞먹는 방대한 진격수단이 동원되고 더우기 공화국의 중요대상물들이 타격목표로 지정되었다는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올해에는 그 무슨 《금병사》를 가사하여 1만여명의 병력과 오기나와주든 미해병대의 최신형수직리착륙기까지 참가하는 대규모의 연합사육훈련도 벌여진다고 하며 그것이 평양강점을 노리고있다는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제반 사실들은 《년례적》이며 《방어적》이라고 광고하는 이 전쟁연습들이 공화국에 대한 무력침공을 노린 북침공격연습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하기에 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겨냥하고 벌리는 침략전쟁연습을 중지하던가, 미국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고 미국과의 《합동》과 《협동》이 버릴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여 정 하고싶다면 우리 나라

령토나 령해, 령공을 벗어나 한적한 곳이나 미국에 건너가 하라고 충고하였다.

남조선당국은 비록 때늦은 감이 있지만 미국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평화대신 전쟁을 몰아오는 침략자이고 민족이 바라는 통일대신 영구분렬과 지배를 노리는 파렴치한 강점자이며 수천만 우리 겨레에게 천추만대를 두고 었을수 없는 괴멸한 죄를 남긴 불구대천의 원수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숨미사대와 공미굴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원수를 가려보지 못하는것은 둘째치고 동족의 진정도, 뜨겁게 내민 화해의 손길도 헤아리지 못하게 되는 법이다.

기자: 공화국은 최전연의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군사적적대행위까지 전면중지하는 실천적조치를 먼저 취하기로 하지 않았는가.

리훈혁: 공화국이 상대방에 대한 자극과 비방중상을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길에 들어서고 서해 5개섬 열점수역을 포함한 최전연지역에서 군사적적대행위들을

## 동족 화해의 진정 이념치는 중대 제안 재중동포가 주장

그 과정에 엄청난 전쟁도 겪었고 한가정속에서 단란하게 살다가 뿔뿔이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속에 한많은 세월을 보내다 눈을 감았다.

동일은 끊어진 혈맥을 이어 민족사의 흐름을 바로세우고 민족이 하나가 되어 세제앞에 우뚝 서는 길이다.

그래서 일찌기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돌로 갈라지면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는 고귀한 명언도 나오지 않았는가.

력사적으로 우리 겨레의 통일문제를 리해관계의 저울추로 다루어온것은 다름 아닌 외세이다.

특히 미국은 자기 리해관계에 따라 우리 조국을 돌로 가르고 지금까지 조선의 통일문제를 철저히 정략적으로 리용하여온 민족분렬의 원흉이다.

남조선의 한 인터넷신문이 공화국 국방위원회에 공개서한과 관련된 글을 원했다.

같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남북관계개선문제를 북이 얼마나 중히 여기고있는가 하는것은 공개서한이 언급하고있는 주요 모든 내용들에서도 한층 더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공개서한은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조국의 자주통일 혹은 민족의 평화변영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밝히는것을 통해 북이 얼마나 남북관계개선을 중히 여기고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남북관계개선문제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고 이를 위해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겠다고 밝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대담하게 선의의 손길을 먼저 내민 북의 중대제안에 어떻게 하나 대결의 현난국을 타개하고 민족이 힘을 합쳐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려는 동족화해의 진정성이 넘친다.

남측이 북의 선의의 중대제안에 어떻게 나오는데 따라 동족화해나, 동족대결이나 하는 립장이 드러나게 될것이다.

온 겨레가 그리고 전세계가 남조선당국자들을 지켜보고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